

# 인공수정·시험관아기 시술 전 수술적 문제 해결 우선 선택을

**건강 바로 알기**  
난임여성 수술 치료

**최민엽**  
시엘병원 원장

성공적인 임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좋은 배아가 생성돼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배아가 잘 착상할 수 있는 환경, 즉 자궁 내막이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아와 자궁내막의 상호 작용으로 임신착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세가지 중 어느 한가지라도 미흡하다면 임신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난임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난임의 원인에는 남성측 요인(정액검사이상)과 여성측 요인(나팔관 요인, 난소기능 저하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원인에 맞는 적절한 난임 치료를 해야 한다. 여성측 원인 중 자궁 및 나팔관 원인에 의한 난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강경, 자궁경 수술을 통해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 이전에 난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난관유착이나 난관수종,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등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무작정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을 선택하는 것 보다는 수술적 문제해결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난임치료의 지름길일 수 있다.

◇복강경 수술=난임치료에서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난관(나팔관)이 막혀 있거나 난관수종(나팔관이 막혀서 액체를 담고 있는 상태)이 진단된 경우에 성형술과 유착박리술을 통해 난관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나팔관과 자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월경이 끝난후 3~5일째에 검사하는 자궁-난관 조영술이다. 난관을 통해 조영제가 충분히 통과되지 않는 모양이거나 난관의 말단 부위가 막혀 있어 점액이나 분비물 등의 액체가



시엘병원 최민엽(왼쪽) 원장이 난관수종이 있는 환자를 상대로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다.

〈시엘병원 제공〉

고여있는 난관 수종이 있을 때 복강경 수술이 요구된다. 난관 수종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난관 성형술을 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좋으며, 난관 수종의 크기나 모양의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 기능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난관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한쪽 또는 양쪽 난관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 다른 난임 원인 중 자궁내막증을 비롯한 난소의 낭종, 자궁 근종, 골반내 유착 등 다양한 질환들에서도 복강경 수술은 유용하게 시행할 수 있다.

자궁내막증의 경우는 자궁내막에 있어야 할 조직이 자궁 밖에 난소나 복벽에 병변이 발생한 것인데, 정상 난소조직을 파괴해 난소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난소 주위 심한 유착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어서 난임을 초래하는 침묵의 질환이다. 수술적인 치료로 낭종 절제술과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게 되며, 수술후에도 남아있는 난소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수술전과 비

교해 난소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궁근종의 경우는 크기가 작거나 자궁내막으로부터 일정 부분만 떨어져있는 경우에는 임신과 착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위치가 자궁내막에 가까울수록 자궁주변 혈류 방해로 해서 임신 착상률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자궁내시경=자궁내부(자궁강)에 병변이 있을 경우 난임의 수술적 치료법으로 자궁내시경 수술법이 있다. 자궁경 수술은 3~5mm 두께의 자궁경을 자궁경부를 통해 자궁강 내로 진입시켜 내시경 카메라로 연결된 화면을 통하여 자궁내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자궁내막의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다. 자궁경 수술은 수면마취 하에 약 10분~20분 이내의 수술시간이 소요되며, 수술 후 출혈 및 통증의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6시간 가량 단기 입원을 하고, 곧 퇴원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수술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고위험 임신부를 위한 희망의 진료일기

전남대병원 김윤하 교수 - 임신부 위한 지침서 '아침에 읽는 임신부를 위한 건강이야기' 발행

전남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김윤하 센터장(산부인과 교수)이 임신부를 위한 의학지침서(사진) '아침에 읽는 임신부를 위한 건강이야기'를 세 번째 발간해 화제이다.

산부인과 명의로 꼽히는 김윤하 센터장은 고위험 산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고위험 질환에 대한 예방과 건강관리 요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책자를 발행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첫 발행 이후 새 내용을 추가한 2019년 2권에 이어, 이번 책자에서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해 임신부들에게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에 발행된 '아침에 읽는 임신부를 위한 건강이야기'는 ▲임신준비 및 산전관리 ▲임신 중 건강 및 약물관리 ▲기형아 검사 ▲임신 초 ▲임신 중 ▲고위험 임신 ▲분만 ▲분만 후 등 임신에서 분만까지 과정을 총 250쪽에 거쳐 8개의 대단원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이번 책자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태아수종, 미세먼지가 임신부에 미치는 영향, 임신 중 부부 관계, 임신 중기 이차 선별검사-알파 태아단백, 임신 중독증 후 중년 여성 건강, 태반 조기 박리, 조산과 양수 내 감염의 관계, 조산 임신부에게 문만 전 스테로이드 투여, 임신 중 태아 말죽질, 태아 선천성 복벽 및 위장관 기형, 임신과 류마티스 질환, 임신 중 자궁선근증, 분만 전후 불가항력 질환, 경증 임신중독증 경과 관찰법, 임신 중 조기 양막 파열 관리, 태아 부정맥 등 16개 단원이다.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용어나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재마다 사진과 삽화를 실었으며, 중요한 치료 및 관리요령에 대해서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팁(Tip)'으로 처리했다.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는 김윤하 센터장의 세 번째 책 발행을 기념하기 위해 25일 출판기념식을 개최했다. 무엇보다 이번 책자는 올해로 회갑을 맞이한 김윤하 교수가 지난 1985년 인턴으로 의료계 첫발을 내딛은 이후 35년간 진료해 온 발자취이자 진료일기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김윤하 교수는 "그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성껏 진료에 매진해왔다. 무엇보다 아직도 힘들어하는 고위험 임신부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책자발행도 그러한 과정 중 하나이다"며 발간



김윤하 교수

배경을 밝혔다.

김윤하 센터장은 충실한 진료·연구·교육과 활발한 학회활동을 통해 국내 산부인과학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대한모체태아 의학회 회장을 맡으며 국내 임신부 태아 의학 연구 및 발전에 노력했고, 2019년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세계산부인과총연맹(FIGO) 안전한 모성과 신생아 건강위원회'의 선출위원으로 임명돼 한국대표로서 세계표준의 임상지침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다.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 고위험임신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신부 진료를 위한 TFT 위원장을 맡으며 의료진을 위한 임신부 코로나19 감염 발생 시 진료 프로토콜을 마련해 배포했으며, 대구지역 진료사례를 수집·분석하는 등 국내 임신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임신부의 날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 중국인 고위험 임신부를 정성껏 치료해 광주중국어대사관 감사패, '행복하고 건강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기여해 광주광역시장표장 그리고 범죄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상과 검찰총장상을 수상했다.

평소 생명중심의 신념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를 펼쳐온 김윤하 센터장은 "故 김대중 대통령의 '생전에 일을 행함에 있어 원칙은 고수 하지만 시행 방법에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씀을 깊이 새겨 의료현장에서도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직접 일이 발생한 곳에 뛰어들어 상황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왔다"고 설명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장소 정보와 실적 통계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장소와 접종실적 등 관련 데이터를 민간 기업과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 장소(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정보와 예방접종 실적 통계 등 2종이다.

이들 데이터는 오픈API(누구나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해 별도 데이터 가공 노력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예방접종장소 정보는 CSV 포맷의 일반파일로도 제공해 사용자가 데이터 활용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접속해 메인화면의 팝업을 클릭하거나 '이슈데이터' 항목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합뉴스

## 아세아 태평양 혈전지혈학회 성료

최근 광주에서 하이브리드 컨퍼런스로 진행된 제11회 아세아태평양 혈전지혈학회(Asia Pacific Society of Thrombosis and Hemostasis : APSTH2021)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8일부터 3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학회는 일본·중국·대만·호주·미국 등 총 32개국에서 800여명이 참여해 오프라인 학회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조강연과 대부분의 토론은 온라인으로 열렸고, 제한된 인원만이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오프라인서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컨퍼런스로 진행됐다.

이번 학회는 대회장을 맡은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와 학회 사무총장인 안영근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내·외 의료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DJ센터서 온·오프라인 진행  
32개국 800여 명 참여  
전남대병원 최우수상·우수상

특히 개최식에서는 광주의 역사·문화·산업을 비롯해 전남대병원이 개발한 심장혈관 스텐트인 타이거 스텐트와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등을 소개했다. 이번 학회는 총 41개 심포지엄 및 세션으로 진행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